들어가기

성경론 1편 성경을 믿는다는 말의 뜻 · 다섯 책과 한 장의 지도

신앙고백서 1.1–1.10 · 프레임 1장 인격적 말씀 모델 · 워필드 역자 서문(이경직) · 오웬 헌정 서신과 편집자 서문(첫 논고 개요 포함) · 바빙크 5장 머리 문단(이 편 정리본 없음, 확인 필요) · 신앙고백서 1장 1장 전체

> ❓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그냥 믿으면 안 돼?**

🧭 흐름 한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에 관한 장보다 성경에 관한 장을 먼저 둔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든 그 근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1.1). 프레임은 이 “말씀하셨다”를 첫 열쇠로 푼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건네시는 인격적인 말이고, 믿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대답이다. 그리고 이것을 잃으면 은혜와 속죄를 믿을 근거가 모두 무너진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안 돼?”에 대한 고백서의 답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1.4)이다. 다만 그 '그냥' 안에는 여러 질문이 접혀 있다. 어떤 책인가(1.2–3), 어떻게 확신하는가(1.5), 무엇을 주고 어떻게 읽는가(1.6–9), 누가 마지막으로 판결하는가(1.10)가 그것이다. 오웬(1659), 워필드(1900 무렵), 프레임(2010)은 각자 자기 시대에 이 고백을 흔든 공격에 맞서 같은 고백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다. 이 편은 1장 열 절을 지도로 펼쳐 놓고, 뒤의 22편이 그 지도를 한 칸씩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절별 정리

📜 1. 성경이 맨 앞에 오는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글로 남기셨다 (신앙고백서 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 잉글랜드 의회가 소집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고백서다. 33장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장(2장)보다 성경에 관한 장(1장)을 앞에 둔다. 1절은 먼저 '자연의 빛'을 인정한다. 자연의 빛은 양심과 이성처럼 사람 안에 심긴 하나님 인식이다. 이것과 창조와 섭리의 일은 사람이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자연에서 배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계시 = 하나님이 스스로를 열어 보여 주시는 일), 그 계시를 글로 남기셨다. 진리를 지키고 퍼뜨리며 교회를 굳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꿈·환상·선지자로 직접 알리시던 이전 방식이 그쳤으므로, 이제 성경은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모든 교리가 이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므로 성경론은 모든 교리의 문 앞에 선다.

1. 고백서는 하나님 장보다 성경 장을 먼저 둔다
2. 자연은 핑계 못 할 만큼 하나님을 보여 준다
3. 그러나 구원의 길은 자연에서 배울 수 없다
4.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글로 남기셨다
5. 이전 계시 방식이 그쳤기에 성경이 꼭 필요하다

> **로마서 1:19-20**
>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주어 핑계할 수 없음
>
>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시편 19:1-3**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없이 선포함
>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히브리서 1:1-2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심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가복음 1:3-4

확실히 알게 하려고 차례대로 기록함. 기록의 목적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15:4

기록된 말씀이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지 못한다." — 신앙고백서 1.1

"그래서 성경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기 때문이다." — 신앙고백서 1.1

📜 2. 첫 열쇠: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답하는 사람 (프레임 1장)

프레임은 『성경론』 첫머리에 책 전체의 요지를 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친구나 가족이 내게 말을 걸 때처럼 실제로 건네시는 '인격적 소통'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에는 정보를 알려 주는 명제적 면이 있다. 그러나 명령, 약속, 비유, 사랑의 표현까지 사람 말의 모든 기능을 품고 있어서 정보 전달보다 훨씬 넓다. 그래서 프레임은 '권위'를 “듣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힘”으로 정의한다. 정보는 믿어야 하고, 명령은 순종해야 하고, 약속은 신뢰해야 한다. 에덴의 금령,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이삭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다. 이야기는 그들이 믿음으로 대답하느냐 불신앙으로 대답하느냐에 따라 흘러간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대답들을 모은 목록이다. 프레임은 오늘 그 말씀을 어디서 듣는지(정경), 어떻게 이해하는지(해석학)는 뒤로 미룬다. 그러면서도 “그러니 들을 수 없다”는 답은 거부한다. 그것을 잃으면 은혜의 구원, 심판, 속죄를 믿을 근거가 모두 무너지고 기독교는 사람의 추측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백서 1.1의 “이전 방식은 그쳤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다”가 바로 프레임이 남겨 둔 질문(“오늘은 어디서?”)에 대한 고백서의 지도다.

1.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건네시는 인격적 대화
2. 정보도 담지만 명령·약속·사랑까지 품는다
3. 권위 = 듣는 이에게 의무를 지우는 힘
4. 믿음 =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5. 이 말씀을 잃으면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

> **창세기 2:17**
> 첫 사람 앞에 놓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 말씀은 분명했고 책임도 분명했음
>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22장**
> 이해하기 힘든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분을 확신함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창세기 18:25

아브라함의 탄원은 하나님의 정의를 전제한 기도이지 의심이 아님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목록. 성경 전체의 줄거리

[1]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요한복음 14:21

>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 프레임

📜 3. 어떤 책이 그 말씀인가: 66권과 영감 (신앙고백서 1.2–1.3 · 워필드 역자 서문)

고백서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쓴다. 그리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이름 하나하나로 적는다.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성경이 무엇인지 흐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목록이 정경이다. 정경은 원래 '잣대'라는 뜻이다. 이 책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에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된다. 정경의 기준이 영감이므로, 영감되지 않은 외경은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다(1.3). 다만 사람의 글로 읽을 수는 있다. 역자 서문에 따르면 워필드는 영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을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데서 찾는다. 또 창세기 첫마디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까지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본다. 고백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름을 적은 것과 같은 범위다. 역자는 워필드가 신약의 성경 인용 용어를 세밀하게 연구한 이유도 소개한다. 한 구절의 권위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신적 권위로 받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보여, '부분 영감론'을 반박하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1. 성경 =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2. 66권을 이름으로 못 박아 '성경'을 흐리지 않음
3. 정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감
4. 외경은 영감되지 않아 교회 안에서 권위 없음
5. 워필드: 한 구절의 권위는 성경 전체에서 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3:15-16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둠. 신약 문서도 성경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24:27, 44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성경 전체로 부르심

누가복음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베드로후서 1:21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말한 것. 영감이 정경의 기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로마서 3:2 ★

★여러 책: 고백서(1.3, 1.8)와 오웬(헌정 서신, 인유)이 함께 듦.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

하시려는 것이다.” — 신앙고백서 1.2

📜 4. 왜 믿는가: 권위는 저자에게, 확신은 성령에게 (신앙고백서 1.4–1.5 · 오웬 헌정 서신·첫 논고 개요 · 프레임 1장)

고백서 1.4에 따르면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다. 전적으로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그러니 “그냥 믿는다”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믿는다”는 뜻이라면 고백서는 그것을 옳다고 한다. 1.5는 그 믿음이 어떻게 굳어지는지 세 단계로 푼다. 첫째, 교회의 증언은 성경을 귀히 여기게 하는 출발점이다. 둘째, 성경은 하늘에 속한 내용, 가르침의 힘, 장엄한 문체,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넉넉히 보인다(자증성). 셋째, 그러나 온전한 확신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마음에 증언하시는 일(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온다. 오웬은 12년 뒤 이 짧은 구절을 한 권으로 변호했다. 그는 “교회가 말해 주지 않으면 성경은 잉크와 종이요 밀랍 코(아무 쪽으로나 휘는 것)”라는 로마 교회의 주장을, 말씀의 자증하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본다. 첫 논고 개요(편집자 정리)는 신적 기원을 보이는 세 길과, 성령의 증거를 교황주의·열광주의와 구별하는 작업을 내다본다. 세 길은 창조에 지은이의 도장이 찍혀 있듯 말씀에 찍힌 내적 증거, 말씀이 자신에 대해 하는 증언, 말씀이 주는 빛과 사람을 새롭게 하는 효력이다. 같은 개요는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을 명하고 요구할 권리와 능력”이라 하는데, 이는 프레임의 정의와 거의 겹친다. 그래서 프레임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심판관 노릇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저자 하나님께 있다
2.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3. 성경은 스스로 넉넉한 증거를 지닌다(자증)
4. 온전한 확신은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에게서
5. 오웬·프레임: 권위는 순종을 요구하는 힘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디모데전서 3:15 ★

★여러 책: 고백서(1.5)는 교회 증언의 가치로 들고, 오웬은 로마가 내세우는 "진리의 기둥과 터" 주장을 이 구절로 따진다. 교회는 진리를 받드는 자리이지 진리를 만드는 자리가 아님

이사야 59:21 ★

★여러 책: 고백서(1.5)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근거로, 오웬은 말씀과 영이 참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외경을 섞은 로마가 분별의 영을 잃었다는 근거)으로 듦

고린도전서 2:14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함. 증거만으로는 부족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20, 27

성령의 기름부음이 신자를 가르치심. 내적 확신의 근거

요한일서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 신앙고백서 1.4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일에서 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시는 일이다.” — 신앙고백서 1.5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 프레임

📜 5. 성경은 충분하고, 필요한 만큼 분명하다 (신앙고백서 1.6–1.7 · 오웬 헌정 서신)

1.6은 충족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직접 적힌 것과, 성경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 계시”라는 이름으로도, “사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에 무엇을 더할 수 없다. 다만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에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내적 조명은 이미 주신 말씀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밝혀 주시는 일이다. 1.7은 명료성을 말한다. 모든 구절이 똑같이 쉽지는 않지만, 구원에 필요한 것은 성경 어딘가에 분명히 나와 있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으로 깨달을 수 있다. 오웬은 로마 교회의 첫째 '독한 샘'을 이렇게 요약한다. 성경은 부분 계시일 뿐이고 나머지는 전통 창고에 있다는 주장이다. 오웬은 “끝도 바닥도 없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성경의 충분함을 빼앗는다고 본다. 이 두 절은 “그냥 믿고 혼자 읽어도 되나?”에 대한 답이다. 읽어도 된다. 다만 성경만으로,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 써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읽어야 한다.

1. 구원과 삶에 필요한 뜻은 성경에 다 있다
2. 적힌 것 +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

4. 구원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아듣게 분명

5. 오웬: 끝없는 전통이 충족성을 빼앗는다

디모데후서 3:15-17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갖추게 함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8-9

다른 복음은 천사가 전해도 저주받음. 새 계시를 더하는 것 금지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가복음 7:7-8, 13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 전통을 더하는 것 금지

마가복음 7:7-8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2:31-32

예수님이 추론으로 부활을 끌어내심. '필연적 추론'의 본보기

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 나는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베드로후서 3:16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음. 모든 구절이 똑같이 쉽지는 않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시편 119:130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도 깨달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 쓰면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 신앙고백서 1.7

📜 6. 우리 손의 성경: 원문과 번역 (신앙고백서 1.8 · 오웬 편집자 서문·헌정 서신)

1.8은 원어 성경, 곧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그리스어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셨다고 말한다. 또 원어 성경이 그분의 특별한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권위 있는 표준 본문'이라고 한다. 동시에 모든 성도에게 성경을 읽을 권리와 명령이 있으므로, 성경은 각 나라의 일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오웬의 책이 나온 직접적인 계기가 이 절과 맞닿아 있다. 월턴의 런던판 『다국어 대역 성경』(1654–1657, 여섯 권)이 사본마다 다른 읽기(이문) 수천 개를 실었다. 그리고 그 서론이 히브리어 모음 부호가 그리스도 이후 수백 년 뒤에 생겼다는 주장(레비타·카펠루스)을 받아들였다. 오웬은 원문의 권위를 깎는 일을 사탄의 고안 가운데 가장 해롭다고 본다. 그런 원문 부패론이 로마를 넘어 개신교 학계에까지

추측으로 원문을 고치는 일이었다. 한편 굴드판 편집자는 오웬이 첫 논고에서 모든 글자와 음절이 보존되었다고 단서 없이 말한 것은 조심성이 부족했다고 솔직히 지적한다.

1. 원어 성경이 권위 있는 표준 본문
2.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됨
3. 모든 성도를 위해 일상어로 번역해야 한다
4. 오웬: 사본 증거 없는 '추측 수정'을 경계
5. 번역의 권위는 도장이 아니라 원문과의 일치

> **마태복음 5:18**
>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음. 하나님의 보존
>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이사야 8:20**
>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 최종 호소처
>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 **요한복음 5:39 ★**
> ★여러 책: 고백서(1.8)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성경을 상고하라”는 명령으로, 오웬은 책 표제지의 표어로 듦. 성경 자체로 돌아가라

> **고린도전서 14:9**
>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함. 번역의 필요
>
>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 **골로새서 3:16**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원어 성경이 권위 있는 표준 본문이다. 신앙에 관한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마지막으로 원어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 신앙고백서 1.8

"그들은 번역문의 말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관계있고 일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찍은 도장 때문에 권위를 갖게 하려 한다." — 오웬

📜 7. 마지막 말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신앙고백서 1.9–1.10 · 프레임 1장 · 오웬 편집자 서문)

1.9는 성경 해석의 틀림없는 규칙이 성경 자신이라고 말한다. 한 구절의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뜻은 "참되고 온전한" 뜻이다. 그리고 어려운 구절은 더 분명한 구절로 푼다. 1.10은 신앙의 모든 논쟁을 판결할 최고 재판관을 묻는다. 공의회의 결정, 교부의 의견, 사람의 가르침,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개인의 주장은 모두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결받는 자리에 선다.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다. 이렇게 1장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로 시작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끝난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묶어 둔 것이다. 프레임의 인격적 말씀 모델과 같은 줄기다. 프레임은 성경을 성경 자신의 세계관과 앎의 이론으로 변증하겠다고 밝힌다. 그것이 순환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는다. 진리의 최종 기준을 변호할 때는 순환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독자를 설득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이다. 오웬이 퀘이커 반박을 같은 책에 묶은 이유도 편집자에 따르면 이 선을 긋기 위해서였다. 말씀의 자증하는 능력은 성경 밖의 '내적 빛'과 다르다는 선이다.

2. 한 구절의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
3. 최종 판결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4. 교회 결정도 개인 체험도 판결받는 자리
5. 프레임: 최종 기준 변증의 순환은 피할 수 없다

사도행전 15:15-16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함. 성경으로 성경을 풀기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마태복음 22:29, 31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요한일서 4:1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개인의 영적 주장 검증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행전 17:11

베뢰아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확인함(고백서 1.7에서도 근거로 듦)

>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누구일 수 없다." — 신앙고백서 1.10

📜 8. 네 세기, 다섯 책: 각 책은 왜 쓰였나 (오웬 헌정 서신 · 워필드 역자 서문 · 프레임 1장)

1647년 고백서는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짧은 공적 규정이다. 근거를 길게 논증하지 않는다. 1659년 오웬의 책은 그가 학장으로 있던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동료와 신학생들에게 바친 것이다(헌정 서신 1658년 9월 22일). 오웬은 로마 교회의 세 '독한 샘'에 맞서 신적 기원과 자증, 원문의 순수성, 퀘이커 반박이라는 세 부분으로 "성경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완성하려 했다. 세 샘은 부분 계시론, 교회 증언 필요론, 원문 부패론이다. 1900 무렵 프린스턴의 워필드는 역자 서문에 따르면 계몽주의·자유주의·진화론의 물결 밑바닥에 '성경의 권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대의 학문 언어로 성경을 변호했다. 다만 바빙크처럼 체계를 집대성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책은 사후 전집에 모인 논쟁 글들이다. 같은 무렵 네덜란드의 바빙크는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체계 안에서 계시·성경·신앙을 다뤘다. 다만 이 편에는 그의 정리본이 없어 그의 말은 옮기지 않는다. 2010년 프레임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주류 자유주의·신정통주의에 맞서 성경의 인격적 말씀 모델을 해설하고 변호한다. 또 무오성을 다시 정의하거나 줄이자는 최근 일부 보수 신학자들의 흐름은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다. 다섯 책은 시대마다 공격 지점이 달랐을 뿐,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한 고백을 지킨다.

1. 1647 고백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짧은 규정
2. 1659 오웬: 교회 권위·원문 부패론에 맞섬
3. 1900 무렵 워필드: 이성·자유주의 도전에 응답

요한복음 5:39 ★

오웬 책 표제지의 표어 “성경을 상고하라”(고백서 1.8도 듦). 책 전체가 성경 자체로 돌아가자는 호소

요한복음 17:3

하나님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 워필드가 계시를 '복'이라 부른 이유(역자 서문이 장절 없이 인용한 1장 문장의 배경)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20:32

(오웬의 인유) 동료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며 맺음. 학문적 논쟁의 끝이 말씀의 능력에 맡김

>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인간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기인한다.” — 워필드(역자 서문이 인용한 1장 문장)

“다른 누가 이 일을 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편이 낫다.” — 오웬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신앙고백서 (1647)	믿어도 된다. 성경은 교회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다(1.4). 다만 온전한 확신은 성경의 증거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 주신다(1.5).	'말씀하신 하나님'(1.1)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1.10)까지 이어지는 열 절의 짜임	근거를 길게 논증하지 않는다. 규정만 둔다. 오웬·워필드·프레임이 풀어 준다
오웬 (1659)	“교회가 그렇다니까” 믿는 것은 성경을 잉크와 종이로 만드는 길이다.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내니 성경을 직접 상고하라.	자증, 원문의 섭리적 보존, 자증과 퀘이커 '내적 빛'의 구별	이 편 재료는 헌정 서신과 서문뿐이라 자증 논증 본론은 뒤 편에서 다룬다. '모든 글자 보존' 표현의 단서 부족 (편집자 지적)
워필드 (1900 무렵)	(역자 서문 기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일한다. 이것은 역자의 정리다.	영감과 권위, 성경 전체의 통일된 권위, 시대의 도전에 학문으로 응답	이 편은 역자 서문뿐이라 워필드 자신의 논증은 뒤 편에서 다룬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 필요
바빙크 (1900 무렵)	이 편 재료에 없다(5장 머리 문단 확인 필요). 신앙고백서 1.1(하나님이 교회에 계시하시고 글로 남기셨다)과 프레임이 그 자리를 메운다.	—	이 편 전체. 운영자가 지정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 문단은 정리본을 받은 뒤 한 줄로 채운다
프레임 (2010)	믿음은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대답이다. 그 말씀의 심판관이 되지 말라.	인격적 소통, 권위 = 의무를 지우는 힘, 순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함	오늘 어디서 듣는지 (정경), 어떻게 이해하는지(해석학)는 뒤 장으로 미룬다. 고백서 1.1·1.2·1.9가 그 지도를 준다

- 고백서 1.5의 “스스로 넉넉히 증명한다”와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을 오웬이 한 권으로 변호하고, 프레임은 같은 생각을 “순환은 불가피하고 결국 성령이 설득하신다”는 현대의 언어로 말한다.
- 고백서 1.8의 원문 보존을 둘러싼 17세기 논쟁은 오웬이 메운다. 1.2의 “영감으로 주어짐”을 성경 언어로 파고드는 일은 워필드 본문이 맡을 자리다.
- 권위의 정의에서 오웬(“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을 명하고 요구할 권리와 능력”)과 프레임(“듣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힘”)이 350년을 사이에 두고 거의 같은 말을 한다.
- 바빙크가 비운 자리(이 편)는 고백서 1.1이 임시로 메운다. 바빙크 정리본이 들어오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한 줄이 1.1과 프레임 사이를 잇는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참되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성질.

불오성
성경이 사람을 속이거나 그릇 이끌 수 없어서 믿고 기댈 수 있는 틀림없는 기준이라는 성질.

자증성
성경이 다른 권위의 보증 없이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성령께서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

명료성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성경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평범한 수단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한다는 성질.

충족성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들어 있어서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성질.

정경
원래 '잣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성경 66권(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목록.

자필본
선지자나 사도가 처음 기록한 원래 문서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사본으로 전해진다.

인격적 말씀 모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사람에게 직접 건네시는 말로 보는 프레임의 틀.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론이 모든 교리의 문 앞에 서는 까닭은, 모든 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건네시는 말이고, 믿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대답이다.
- “그냥 믿는다”는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 믿음은 성경의

- 신앙고백서 1장 열 절은 이 믿음에 접혀 있는 질문들을 차례로 펼친 지도다. 필요성, 정경, 권위, 확신, 충족성, 명료성, 본문, 해석, 최종 판결자가 그것이다.
- 네 세기의 다섯 책은 시대마다 다른 공격 앞에서 같은 지도를 지켜 왔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프레임 · 인격적 말씀 모델
- 워필드 · 역자 서문
- 오웬 · 헌정 서신과 편집자 서문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